

개한坪井氏의 慧眼과 東大博 文明大氏의 苦必에 의하였다. 이 至治三年은 一三三三年 高麗 忠肅 五十年에 해당하는 바 紀年小鐘을 確認한 兩氏에게 感謝를 表한다.

陰城 文化洞 五層石塔

——陰城邑內의 佛蹟 其一——

鄭 永 鎬

지난 夏季放學에 檀國大博物館踏查隊가 行한 忠北 槐山地區古蹟調査時 ① 陰城邑內 몇곳에서 佛敎遺蹟을 調査한 바 있기에 그 內容을 紹介하려 한다.

一、文化洞 五層石塔

現在 이 石塔은 秀峯國民學敎(文化洞二〇八) 講堂앞에 移建되어 있는데 現地에서 安孝景(同校敎師) 金富年(陰城郡敎育廳) 兩氏의 말에 의하면 本來 이 國民學校 뒷편의 鄕校밭(田)에 있었던 것을 一九五七年 가을에 現位置로 옮긴 것이라 한다. 이 石塔에 關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簡單한 記錄이 ② 있는데 여기에도 鄕校밭에 있다 하여 原位 置는 符合되나 「六層의 石塔으로서 蓮紋을 彫刻하였다」는 말은 實際와 相異한 바로서 誤記임을 밝혀 둔다.

現在 二層과 五層의 屋身이 缺失되었는 바 上記 兩氏의 證言에 依하면 現石塔의 各部材는 移建前과 다름이 없다고 하니 이 石塔은 오래前에 倒壞되어 兩屋身이 缺損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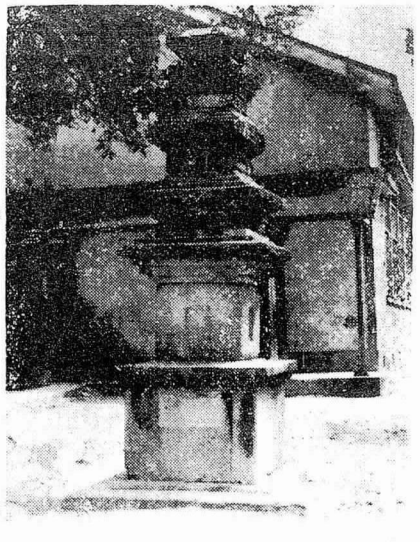
單層基壇인데 二枚石으로 方形의 地臺를 結構하고 上面에 四分圓의 물딩과 角形의 낮은 받침으로 基壇面石을 받고 있다. 基壇은 一枚石인 바 各面에 兩隅柱가 刻出되고 甲石에는 副椽이 整然하며 上面에 一段의 角形받침으로서 塔身을 받고 있다.

初層屋身에는 各面 中央에 長方形의 龕室이 陰刻되었는데 그 周邊에

아무런 彫飾이나 痕跡은 없으며 兩隅柱도 없고 各屋身에도 隅柱의 表現은 없다. 屋蓋石은 落水面이 層段을 이루어 塔塔을 模倣하고 있어 注目되었다.

初層屋蓋石은 二枚石으로서 屋蓋받침 三段이 刻出된 一枚石위에 一枚石이 重疊되었는데 落水面의 層段은 三段이다. 二層屋蓋石以上은 모두 一枚石으로 되었는 바 二、三層의 屋蓋받침은 三段式이고 落水面의 層段도 三段式이며 四層은 屋蓋받침이나 落水面層段이 一段인데 五層은 屋蓋받침 二段뿐으로 落水面을 通式의 傾斜를 이루어 層段이 刻出되지 않았고 上面에 一段의 낮은 角形받침과 中心에 擦柱圓孔이 있을 뿐으로 그 위 相輪部는 全無하다.

그런데 以上 諸屋蓋石에서 五層만은 本來 이 石塔의 部材가 아닌 것 같다. 그 理由로는 ① 五層以下의 各屋蓋石 落水面에는 二、三段式의 層段이 있는데 五層만은 없는 相異한 樣式인 點 ② 轉角에 反轉이 顯著한 點 ③ 이 隣近에는 다른 또 하나의 石塔의 部材가 數點 散在해 있는 點(本稿次項에서 紹介될 것인) 등 其他 治石手法이 같지 않은 點인 것이다. 各屋蓋石의 轉角에는 風磬이 달렸던 小孔이 있는데 그 中 四層에는 鐵片까지 남아 있다. 中間의 屋身이 缺失되어 完形은 아니나 各屋蓋의 遮減으로 보아 輕快한 形態라 하겠다. 이러한 類例가 거의 羅代에 建立④ 되었으나 이 石塔은 그 基壇部의 構造와 初層塔身의 龕室等 各部 彫刻手法으로 보아 高麗代로 推定되었다. 實測値는 (cm)



現高三七二 基壇面石高 一〇一·五 甲石一邊厚 一一三·五
幅 一〇一·五 長 一一七·五

- 初層屋身高 五九 龕室 二六×一八
- 幅 六七 深 三三
- 三層屋身高 一一二 四層屋身高 一〇・五
- 幅 五五・五 幅 四七
- 初層屋蓋長 一二〇 二層屋蓋長 一〇〇・五
- 厚 四五 厚 四一・五
- 三層屋蓋長 八〇 四層長 七〇 五層長 五九
- 厚 三六 厚 三〇 厚 二四
- 擦柱孔徑 六九이다.

二、其他 遺蹟

前述한 石塔의 原位置는 一帯가 耕作地로 變해졌는데 現在도 瓦片이 散亂하여 寺址임을 곧 알 수 있다. 筆者가 調査時 前記 安先生이 蒐集했다고 하는 平瓦片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天寺」라는 左書銘이 있어 「天寺」의 한쪽임으로 앞으로 이 곳의 寺名이 確認될 可能이 있게 되었다. 이 외에 蒐集品인 莫斯瓦로 調査했으나 모두 高麗代로 推定되었다. 한편 이 耕作地에서 西北쪽으로 約二百m 되는 곳의 學校에서는 石塔屋蓋石二枚를 調査하였는데 一枚는 現在 民家の 柱礎石으로 使用되었고 他一枚는 後庭石築材로 使用되어 있었다. 前者는 屋蓋받침이 四段이고 上面屋身받침은 角形二段이며 後者는 屋蓋받침 四段임이 確認되었다.

이 石塔材가 이곳이 原位置인지 또는 다른 곳에서(寺址↓耕作地) 移搬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前述한 秀峯國民學校內의 石塔以外에 다른 또 하나의 石塔이 있었던 것만은 推定할 수 있다.

바라전대 現耕作地를 發掘할 機會를 마련하여 寺名도 밝히고 다른 諸部材도 收拾했으면 한다. 實測値는(cm)

- 〔其一〕 蓋部 一〇四
- 〔其二〕 屋蓋받침長(下部부터) 五三・五, 六〇, 六七, 七三이다.

註

① 檀國大 忠北槐山地區古蹟調査——本誌 第八卷 第九號 通卷第八六 頁一七欄 參照

② 八五頁末項에 「陰城郡校田、陰城邑ノ東方約五町ノ田中ニ 在リ寺址ハ 田ニ 變シ 高サ 十二尺ノ 六重ノ 石塔アリ 蓮紋ヲ 刻シ 彫刻

- 精巧ヲ 極ム라 있다.
- ③ 塔塔을 模倣한 諸石塔에서는 轉角의 反轉이 없다——그 類例는 慶州西岳里三層石塔、義城邑五層石塔、義城冰山寺址五層石塔、慶州南山里三層石塔 等이라 하겠다.
- ④ 現今까지에 調査된 石塔은 模倣石塔以外는 모두 新羅代의 建立으로 推定되고 있다(國寶圖錄第五輯 石塔篇 參照).

泗川 土城 調査略記

金 相 朝

지난 여름 早災가 極甚할 때 被害狀況과 揚水作業 激勸慰勞次 郡內一圓을 돌고 正東面에서 泗南面으로 徒步로 尼丘山麓의 중허리를 넘어가는데 멀리 않는 南쪽 山허리에 土城址가 있음을 發見하고 저것이 東國輿地覽勝과 泗川邑誌에 나오는 城隍山城이고 하나 하는 것을 直感的으로 느꼈다. 이때는 눈코 뜰새이 없는 때이라 餘暇가 나는 대로 調査하여 보리라 마음을 먹고 있던 중 지난 十月十五日 日曜日의 休일을 틈타 同好人 金性澤 金德致 鄭東柱 河珣植 諸氏와 同行 邑內에서 二km 許에 있는 禮樹里의 마을 앞 들밭을 가로질러 흙가분한 登山차림으로 一〇九高地인 이 城隍堂山(五萬分之 一地圖上의 名稱)을 向해 기어 올랐다. 城中央에서 四方을 살펴보니 東西南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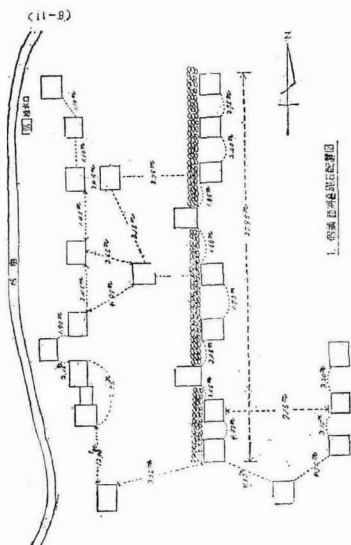


圖1. 假稱 西將臺礎石配置圖